

## 광주·전남 행정 통합 첫걸음 뒀다

이용섭·김영록 절차 합의  
용역 1년·검토 6개월 후  
공론화위원회 구성키로  
현 시·도청 기능은 유지



이용섭 광주시장(오른쪽)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2일 오전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합의문에 서명하기 전 손을 맞잡고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9월 전격 제안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 된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와 전남도는 수도권과 맞서고, 초광역권을 추진중인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대구·경북, 대전·세종 등 타 지역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 시·도 통합을 서둘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아직은 구상 단계라는 점을 고려해 광주전남연구원 용역 1년, 검토·준비기간 6개월을 거친 뒤 공론화위원회를 공동 구성하고 민간 주도, 상호 존중 기조 속에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는 대원칙을 지켜나가기로 했다.

일부에선 1년 6개월이라는 용역·준비기간을 소비할 경우 시·도 행정통합 자체가 민선 8기로 넘어가게 돼 '유야무야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지만, 시·도 통합 논의가 첫 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2일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시장·지사는 합의문에 "두 지역 정치, 경제,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통합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의 화합과 소통 속에서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소수의견이 존중되도록 하겠다"며 두 손을 맞잡았다.

통합 논의는 시·도의 발전을 위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상호 존중과 배려의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합의문에는 6가지 사항이 담겼다. 첫째로 통합 논의는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고 행정은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둘째는 통합 논의를 위한 1단계로 광주전남

연구원이 통합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그 내용에는 경제공동체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의 장단점을 포함하기로 했다. 셋째는 2단계로 용역 기간 1년, 검토·준비 기간 6개월을 거쳐 시·도 통합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하고, 넷째는 통합단체장의 권한을 강화해 통합과 조정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과 재정지원 확보 등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다섯째로는 통합청사 소재지 문제가 통합 논의의 걸림돌이 돼선 안되며 현 시청과 도청은 통합 이후에도 현재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마지막으로 통합 논의는 국립 의과대학 설립 등 지역 주요 현안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합의문과 관련해 김영록 지사는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 아닌 셋이 될 수 있는 추가적인 혜택이 중앙에서부터 주어져야 하고,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과 재정 확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우선 정부 지역균형 뉴딜 계획에 맞춰 함께 할 수 있는 초광역권 협력사업을 발굴해 추진하

고 경제협력 공동체를 구축해 최종 목표인 행정 통합까지 이르는 단계적 접근이 좋은 방안이라 생각한다"며 행정통합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용섭 시장은 "시·도 지사간 합의는 새로운 광주·전남 시대를 열기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주역에 나온 '이인동심(二人同心) 기리단금(其利斷金)'이라는 말처럼 마음을 합하면 그에 리힘이 단단한 쇠라도 끊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 경제협력 공동체를 구축해 최종 목표인 행정 통합까지 이르는 단계적 접근이 좋은 방안이라 생각한다"며 행정통합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용섭 시장은 "시·도 지사간 합의는 새로운 광주·전남 시대를 열기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주역에 나온 '이인동심(二人同心) 기리단금(其利斷金)'이라는 말처럼 마음을 합하면 그에 리힘이 단단한 쇠라도 끊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바이든

## 바이든 '우세' 트럼프 '추격'

미국 대선 투표 돌입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가 3일 시작됐다. 이번 선거는 재선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3수 끝에 후보직을 거머쥔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간 양보할 수 없는 한판 대결이다.

〈관련기사 8면〉

두 후보는 미국 국내 현안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정책, 특히 한반도 문제를 놓고도 시각차가 현격해 대권 향배는 전 세계는 물론 남북을 포함한 동북아 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상 열세인 트럼프 대통령은 막판 세를 이룰 통해 4년 전 역전승의 기적을 다시 한번 노리지만 상대적 우위인 바이든 후보는 '굳히기' 전략에 들어간 양상이다. 여론조사 지표는 바이든 후보의 승리 쪽에 쏠려 기운 듯하다.

선거분석 전문매체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가 지난달 23-31일 각종 여론조사를 취합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은 선거 D-2인 1일 기준 전국 단위 51.1%로 트럼프 대통령(43.9%)을 7.2%포인트 앞섰다. 이는 2016년에 비해 민주당 후보에게 더 안정적 흐름이다.

하지만 대선 승부처로 꼽히는 6개 경합주는 여전히 오차범위 싸움이 많아 승패를 예단하기 쉽지 않다. RCP에 따르면 6개 경합주에서 바이든 후보의 리드 폭은 D-2 기준 3.2%포인트로 전국 단위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주별로 북부 '러스트 벨트' 3개 주인 미시간(6.2%포인트), 위스콘신(6.0%포인트), 펜실베이니아(4.0%포인트)는 경합주 평균 이상의 격차로 앞섰다. 반면 '선크로스'로 불리는 남부 3개 주의 경우 플로리다 0.7%포인트, 애리조나 1.0%포인트, 노스캐롤라이나 2.3%포인트 등 바이든 후보가 오차범위 우위 속에 승패를 알기 힘든 그야말로 접전 양상이다.

다만 2016년 대선 때 클린턴 후보의 이틀 6개주 리드 폭이 D-2 기준 불과 1.3%포인트였음을 감안하면 바이든 후보가 경합주에서도 4년 전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 MB, 251일만에 재수감

황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재수감됐다.

이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46분께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출발해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 신원 확인·형 집행 고지 등 10여분 간 절차를 거치고 검찰이 제공한 차를 타고 서울동부구치소에 이송됐다. 지난 2월 25일 서울고법 1부 1심 판결이 내려진 이후 251일 만에 재수감되는 것이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에 위치한 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 22일 구속돼 보석으로 풀려날 때까지 약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던 곳이다. 동부구치소는 지상 12층 높이의 최첨단 시설로 지어져 전국 구치소 중 가장 최신 시설로 꼽힌다. 2017년 6월 옛 성동구치소를 확장 이전하면서 지금의 모습과 이름을 갖게 됐다.

## 4평 독거실서 생활할 듯 교도소 이감 여부 결정 안돼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 등을 고려해 앞선 수감 때처럼 동부구치소 12층의 독거실을 배정받았다. 12층은 독거실과 혼거실 섞여 있는데, 교정 당국은 다른 수용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차단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독거실은 화장실을 포함해 13.07㎡(3.95평)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의 독거실(10.08㎡·3.04평)보다 약간 크다.

방에는 일반 수용자와 같이 TV와 거울, 이불·매트리스 등 침구류,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청소용품 등이 비치된다. 전직 대통령 수용 사례 등을 고려해 전담 교도관도 지정된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구치소에 머무르다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이감된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인데다가 고령에 지병도 있어 교도소 이감 없이 동부구치소에서 형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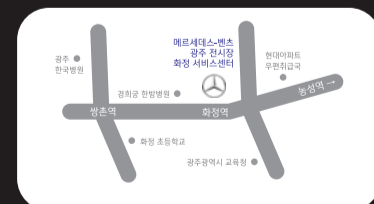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 형을 확정받았지만 앞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약 1년간 구치소에 수감돼 남은 수형 기간은 약 16년이다. 형기를 모두 채운다면 95세인 2036년에 석방된다. /연합뉴스



## The new GLA & The new GLB

#UrbanAdventure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학원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증고급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안구 일평로 516(수원동)  
호주 서비스센터 (062)945-2700 광주광역시 광안구 유림로 602(광주교동)  
주안 서비스센터 (062)945-0090 광주광역시 광안구 일평로 520(4-원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평균  
GLA 250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660kg, 자동차연비/ℓ/100km: 도시/고속도로/복합: 10.5/5.5/6.5, (도심연비: 9.5, 고속도로연비: 12.1), 4등급, 복합 CO2 배출량: 170  
GLB 220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650kg, 자동차연비/ℓ/100km: 도시/고속도로/복합: 10.3/5.5/6.5, (도심연비: 10.3, 고속도로연비: 13.2), 4등급, 복합 CO2 배출량: 150  
GLB 250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20kg, 자동차연비/ℓ/100km: 도시/고속도로/복합: 10.5/5.5/6.5, (도심연비: 9.5, 고속도로연비: 12.1), 4등급, 복합 CO2 배출량: 170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공기 저항 계수는 국내 차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